

MERCOSUR 창설배경

김 홍 수
ASPAC 사무총장

1. 머리말

EU, NAFTA, APEC이 발족하고 WTO가 출범함으로써 세계는 지금 무역자유화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간, 국가간 무한 경쟁 시대의 빠른 물결에 휘말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자연히 지역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몇몇 특정 지역에 대하여서만 관심과 이목을 편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이처럼 편중된 성향으로 해서 여타 지역에 대하여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지구의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내 경제 통합을 위하여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이 바로 면적 1,783만Km², 인구 약 2억 7천만 명의 거대한 남미 대륙으로서 농산물 생산과 광물자원 매장량의 전세계 비중에서 각각 20%와 25%를 차지하는 풍부한 부존자원 등으로 해서 21세기에는 지구상의 Bread Basket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대 경제사회를 위해 필요한 3대 전략물자인 식량, 철광석,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없는 바, 식량자급율은 34%를 밑돌고, 철광석 자급율은 5% 수준이며 석유 생산은 전무함으로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는 사실로 해서 경제적 잠재력이 여타 일부 강대국 지역을 능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소홀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최근 4-5년 사이 우리 상품 수출이 60%-100% 신장하면서 흑자시장으로 부상하여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남미대륙내에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주축이 되어 1991년 3월 남미 4개국 공동시장, 즉 MERCOSUR(Mercado Común del Sur)이 창설되고 동 경제 통합체는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 출범함으로써 또하나의 지역 경제 블록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각계 각층에 좀더 깊은 이해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스페인, 중남미 연구소가 “남미공동 시장과 중남미 경제 통합의 전망”에 관한 중요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WTO

출범으로 국경 없는 경쟁시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합류하지 않으면 안되고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전방위적 경쟁시야를 넓혀야 할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시의 적절한 학술회의라고 할 수 있으며, 주최자측에 치하드리고저 한다.

이와 같은 중요한 학술회의에 주최측인 “스페인, 중남미 연구소”로부터 초청을 받고 MERCOSUR 창설 배경에 대하여 외람되게 말씀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한다. 특히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소장 김현창 교수로부터 MERCOSUR 창설 조약 서명식이 있었던 1991년 3월 마침 본인이 주파라과이 대사로 근무하면서 동 서명식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한 바 있었고 또한 MERCOSUR 회원국인 Brazil과 Uruguay에도 근무한 바 있어 MERCOSUR 창설 배경에 대하여 동 지역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한 요지를 말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기에 논리적이며 학문적인 깊은 연구를 떠나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 근무 경험을 통해 느낀 바에 따라 개술하고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2. MERCOSUR 창설회의 분위기

1991년 3월 Paraguay 수도 Asunción에는 남미공동시장 창설 조약 체결을 위한 회의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대통령과 여타 인접국으로부터의 옵서버, 중남미 지역 관련 각급 경제기구 대표 그리고 외교사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동 회의의 주역인 4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는 1980년대까지 공통적으로 군사독재 정권, 빈번한 군사혁명의 반복 등으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이에 수반된 경제 침체와 천문학적 인플레이 등으로 세계의 주목 대상이 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위시하여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차례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면서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정치적 안정은 자연 경제 침체와 고인플레이 늪에서 헤어나갈 수 있는 처방을 찾게 되었고, 이들 정부는 누적된 정부 재정 적자를 극복하면서 경제적 회생을 함으로써 한때 500%-1,000% 이상의 인플레이도 40%-200% 선으로 진정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한자리에 모인 4개국 대통령들은 매우 자신감에 차 있었고 민주주의와 경제 안정, 역내 경제 협력강화와 경제 통합 추진을 그 어느 때보다 열기 있게 논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4개국 정상 중 아르헨티나의 Carlos Saul Menem 대통령, 우루과이의 Luis Alberto Lecalle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의 Fernando Collor 대통령은 민주주의 문민 정부 대통령으로서 역내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경제 교류를 목표로 하는 경제통합 기구 창설을 강조하면서 역내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치 각자 자기들의 민주주의 정치와 경제 발전의 밝은 앞날을 제각기 경쟁적으로 보장하는 정치 전시장과도 같았으며 마치 지금 당장 지역 경제 통합체가 출범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파라과이의 Andrés Rodriguez 대통령만 비록 국민 총선거에 의해 압도적 다수표에 의해 선출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군인 신분으로 남아 있어 여타 3개국 민선 대통령과 비교되기도 하였으나, 후에 Rodriguez 대통령도 1989년 2월 군사혁명 직후 천명하고 1989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를 재확인한 바에 따라 1993년 총선을 치른 후 정치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회의 분위기는 마치 라틴 아메리카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핀 것과 같은 축제 분위기였다. 각국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이번 MERCOSUR 회의는 이제까지 있어 왔던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회의에서, 그리고 특히 미주국가관계 회의에서 볼 수 있는 미사여구의 수식사나 구호(Rhetoric)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회의가 되고 Latin America 통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실제로 동회의기간 중 4개국 대통령을 위시하여 여타 회의 참석 인사들이 라틴 아메리카 관행상 찾아보기 드물게 모든 회의를 정시에 개최하고 정시에 회의 정족수가 채워지는 한편, 회의시 발언내용도 과거와 같은 불필요한 Rhetoric 없이 필요한 내용만의 짧은 발언만을 하는 모습이였다. 또한 오찬, 만찬을 위한 이동시에도 4개국 대통령이 마이크로 버스(한국의 기아 베스트)에 동승하여 대화의 깊이를 더하면서 4개국 MERCOSUR 창설 의지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동 회의에서의 이들 4개국 대통령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수행각료들의 발언 내용 중 또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MERCOSUR 창설은 이제까지 시도하거나 추진되어 온 여러 형태의 라틴 아메리카 통합 추진의 진일보 완숙된 형태의 통합체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범 라틴 아메리카 통합체의 기초가 될 것임을 자부하고 있었다. 또한 발언시 한결같이 인용하는 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통합이념은 라틴 아메리카 제국이 독립 초기부터 Simón Bolívar와 José de San Martín에 의한 범 라틴 아메리카 결속 노력에 근원을 두며, 이들에 의해 제창된 League of Hispanic States는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창설된 국제 연맹보다 앞섰던 것이고, 1945년 창설된 UN보다는 더더

욱 앞선 국가간 통합체 추진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Latin America 정치가들의 선견지명있는 이념이 세계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따라서 MERCOSUR이 남미대륙 남쪽 4개국간의 경제적 통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국경 없는 자유로운 교류가 현실화될 때 정치적 차원에서까지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Simón de San Martin의 통합의 이념이 완성되는 것임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3. MERCOSUR 추진의 역사적 의의

남미지역 경제 통합 기구로서의 MERCOSUR 창설을 위한 Asunción 조약이 1991년 3월 파라과이의 수도 Asunción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4개국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기까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 경제 통합기구로서 MERCOSUR이라고 하는 경제협력체 탄생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조명하는 경우 중남미 지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한 정복, 그리고 식민지 정치에 따른 핍박의 긴 시간을 거쳐 1810년경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쟁취 태동, 독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기하기까지의 혼란기간, 현대적 국가로의 발전 발돋움시기 등을 거치는 오랜 기간동안 이지역 국가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며, 이것은 바로 MERCOSUR 창설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지역통합 추진은 아르헨티나의 독립 영웅 José de San Martin 과 Gran Colombia(오늘날의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및 에쿠아돌 3개국이 분리 독립하기 이전)건국 영웅 Simón Bolivar 두 영웅이 1822년 7월 현재의 에쿠아돌의 Guyaquil에서 회동, Simón Bolivar이 오래 전부터 구상하여 오던 Argentina - Chile에서부터 México에 이르기까지의 대통합 국가건설에 대한 원대한 이상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Simón Bolivar은 1810년 스페인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독립전쟁 투쟁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모든 Hispanic America 국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위대한 국제주의자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이상적 통합 구상을 가지고 San Martin과 Gyaquil에서 회동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기에는 양자간의 의견 차가 커서 동 회동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Simón Bolivar 또 하나의 원대한 구상은 Hispanic American 국가 연맹(League of Hispanic American States)을 창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Treaties of Alliance를 라틴 아메리카 국가간의 체결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회의가 1824년 파나마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그 시기는 미국의 Monroe 대통령 재임기간 중이었고, 미국이 유럽 제국가로 부터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Monroe 주의를 주창하고 있었을 시기였기도 하다.

1824년의 동맹조약은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중미 및 Rio de la Plata 연방(아르헨티나, 칠레 남부 일부) 대표들에 의해 서명되고, 곧 이들 서명국가들의 비준이 있었다.

이 시기에 영국은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영국의 값싼 공업제품은 Latin America의 소비습성을 변화시켜 Latin America의 수공업업을 붕괴시켰다. 먼 훗날 Latin America 각국이 수입대체 산업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된 것이다.

1826년 The Treaties of Alliance 서명국가들이 파나마에 General American Congress를 소집하였으나 여러나라가 참석치 않아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나 장차에 있어 서반구의 단결(통합)과 이해를 촉진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를 두고 근대 정치학자들간에는 The OAS and UN can look to Bolivar as one of the first statesman in the world sincerely interested in advocating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라고도 하고 있다. 이 당시 중남미 각국의 경제는 매우 후진적이었고, 역내 교통 사정도 불편하였던 사정 등으로 해서 결국 동 회의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회의는 오늘날까지 어떠한 형태로서의 단결과 통합을 시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역내 각종회의가 간헐적으로 이어졌으나 1890년 미국이 주도하는 제1차 미주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의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 오다 동서 냉전의 시대에 이르러 집단 안전보장기능을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광범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미주국가기구, 즉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공정치 기구의 성향이 짙어 중남미 제국이 바라던 경제 협력을 주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에 이르러 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고 중남미 제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Montevideo 조약이 체결되고 12년대(1973년까지)에 자유무역지역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라틴 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ALALC - Alianza Latino Americana de Libre Comercio)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역내 각국의 상이한 경제 환경 등 여러 사정으로 LAFTA는 좌절을 겪게 되고 1980년 또 다시 Montevideo 조약에 의해 새로이 [라틴 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LAFTA 설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정치적 사정의 차이점 등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몇몇 Andes국가들이 1969년 5월 안데스 협정(Pacto Andino)을 체결, 소그룹 통합체 기구를 출범시켰고, 카리브의 CARICOM, 중미의 중미공동시장 등이 각각 발족한 바 있다. 그후 남미지역에서는 ALADI를 중심으로 부단히 경제 통합 추진을 하여 왔으나 전 가맹국의 상이한 경제 사정, 정치적 환경 등의 사정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한 EC(EU)출범, NAFTA대두, 그리고 WTO출범 전망 등 세계 경제 환경의 지각 변동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남미 지역 각국이 점차로 민주화를 실현하게 되어 상호 신뢰 구축과 경제 협력 강화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특히 남미의 강대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이 종래의 경쟁적 관계를 협력 관계로 전환코자 하는 1985년의 Iguazu 회의를 거쳐 1988년 11월 브라질의 Sarney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Alfonsin 대통령이 경제협력과 통합계획을 추진하는데 합의하면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태동하기에 이르렀다.

4. MERCOSUR 4개국 입장

MERCOSUR 조약 서명 4개국의 경제적, 산업적 구조는 대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편중되어 있는바, 우선 국토면적과 인구면에서 브라질이 8,511,965Km², 약 1억 5,000만명의 인구에 GDP \$335,742백만, 국민개인 소득 \$2,076이고, 아르헨티나는 2,766,889Km²의 면적, 약 3,300만명에 GDP \$132,372백만, 개인소득 \$4,046이다. 산업면에서는 브라질은 제조업, 농목, 에너지, 운송장비, 섬유제출, 화학공업이고 아르헨티나는 금융서비스, 농목(밀, 사과, 포도, 식품가공, 낙농)이 발달되어 있다. 한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앞의 두 나라에 비하여 국토면적, 인구, 경제력, 산업구조 등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취약하나 지정학적 전략면에서는 우루과이가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 양국 사이에서 완충국가(Buffer Zone) 역할을 하여 왔고, 파라과이 또한 내륙국가로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과 국경을 같이하고 있어 우루과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우루과이 국토면적은 176,224Km², 인구 310만명, GDP \$8,901백만, 개인 소득 \$2,860, 파라과이는 면적 406,752Km², 인구 450만명, GDP \$6,811백만, 개인소득 \$1,549 이며 우루과이는 농목이 경제적 산업적 기반이고 파라과이는 농목과 에너지(전기)이다. 이들 4개국의 최저 임금수준도 브라질 \$64, 아르헨티나 \$200, 파라과이 \$88, 우루과이 \$75 선이다.

따라서 4개국의 통합된 면적은 약 1,200Km², 인구는 약 2억명이고 GDP는 \$4,830억 상당이다. 이들 4개국의 교역 총액은 약 1,000억불(수입 \$400억불 추산)이다.

4개국의 수출입 규모는 \$93,377백만으로써 국별로는 브라질 \$64,801백만(수출 \$38,398백만, 수입 \$26,403백만), 아르헨티나 \$22,851백만(수출 \$12,915백만, 수입 \$9,936백만), 우루과이 \$3,991백만(수출 \$2,236백만, 수입 \$1,755백만), 파라과이 \$3,489백만(수출 \$1,523백만, 수입 \$1,966백만)이며, 4개국의 수입 규모는 약 \$70,000백만 상당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개국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할 때 1991년 3월 Asunción 조약 당시 MERCOSUR이 과연 1995년 1월 1일 계획대로 출범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여론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이들 4개국은 EU, NAFTA 등과의 협력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에 경제, 산업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교류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역내 경제 통합체를 출범케하는 것이므로 1)수입대체산업의 대외경쟁 구조로 변경 2)외국 투자유치 3)교역증대 4)관세통합 5)고용창출 등 추진을 새 전략으로 구상하고 기업 간 유대강화를 가능토록 하여 타블럭과의 대응력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4개국 중 주도적 입장에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산업구조면에서 3차산업-2차산업-1차산업의 순으로 선진국적인 점에서 있어서 유사하다. 브라질은 공업 생산 능력이 세계 8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 기계, 전기기기 생산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발전한 나라이며, 광물자원 및 대두(년산 2,000 만 톤), 커피(년산 200-400만톤), 옥수수, 사탕 및 오렌지(세계1위) 등 농산물 생산량도 세계적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취약점은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고인플레이의 늪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으나 언제 또 다시 고인플레이 파도가 넘쳐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약점이다. 그러함에도 1991년 MERCOSUR 역내

교역량 \$62억, 92년에는 약 \$63억으로 증가하여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농목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산업국이었으나 농목산품 수출 확대와 함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공업이 발전하면서 공업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고, 60년대~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수입대체 산업정책으로 국내산업 과보호를 하게 되었고, 이 결과 대외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76년 이래 개방 경제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정리 통합을 진행하여 대외 경쟁력의 배양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광활한 국토에서 연간 곡물류 생산 능력은 약 3,300만톤이며 목축은 소와 양이 약 1억 4천만두에 이르기 때문에 1차산업의 비중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의 이와 같은 막대한 곡물 생산 능력으로 해서 21세기 Bread Basket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Menem 대통령은 경제 외적으로 Falkland 사태후 반미감정의 앙금과 농산물과 관련하여도 경쟁관계에 있다. 투자와 무역관계에서 유럽지향적인데다, 인접국 칠레가 NAFTA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브라질의 공업대국 그리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으로 MERCOSUR 창설시 아르헨티나로서는 위험부담을 느끼면서도 거대한 여타지역 경제 불력에 대한 대응력 강화라는 정치적 필요성으로 해서 MERCOSUR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밀고 나갈 입장이었다.

4개국중 소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양국은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두 대국 사이에서 교역, 경제협력, 관세정책 등의 면에서 피해받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는 처지이나 농목축업, 임업 등 분야에서 양 대국에 대한 수출증대 등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국경에 위치하는 Ciudad del Este라는 국경 도시에 자유 무역지대를 오래 전부터 설치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인접국가를 상대로 하는 연간 약 10억불 상당의 교역을 하여 오고 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관광객들에 의하여 자유무역지대로부터 유입되는 상품들의 가격은 이들 두 나라가 정식 수입하는 가격의 30%-50%에 불과하여 밀수형태로 변형되어 왔기 때문에 역외 공동 관세 적용시 파라과이로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MERCOSUR 출범시 농목축산품의 국경 없는 교류가 실현되는 경우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정시기를 거치면서 MERCOSUR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MERCOSUR 출범 이후 4개국은 각각 다음과 같은 참여분야가 중점화될 전망이다 없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즉, 아르헨티나는 금융서비스, 농목(밀, 사과, 포도,

식품가공), 브라질은 제조업, 운송장비, 화학공업, 섬유제품, 에너지 및 농목(대두, 커피, 오렌지), 파라과이는 농목, 에너지(발전), 우루과이는 농목으로 산업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5. 맺음말

MERCOSUR 출범은 4개국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이들이 차지하는 경제적 잠재력은 남미 대륙에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잠재력으로 보아 하나의 거대한 경제 블록이 남미 대륙에 형성된 것이며, 이 통합체가 성공적일 경우 남미대륙 내 여타 국가들에 미치게 될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장 증대에 따른 생산범위의 확대로 생산 체제의 전반적인 강화, 타 블록과의 협상기반 강화가 가속되는 등 통합체로서의 기반 구축이 실현될 것이 예상된다. 역내국가간 통신, 교통, 전기 에너지 등 기간 산업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적 협력과 자본의 자유왕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유로운 상호 교류를 보장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여망인 미주국가 통합 실현을 위한 기반을 공고하게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유의해야 한다. 각국의 분야별 불균형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비관세 장벽 상존, 공동통상 규칙, 역외 공동관세 채택 등의 문제들이다. 1991년 3월 Asunción 회의를 시점으로 볼 때 1995년 1월 1일 MERCOSUR 출범시까지 문제점의 완급을 가려 단계적이고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행히 1991년 1월 1일부터 MERCOSUR이 예정대로 출범하게 되었다. 원대한 여망인 라틴 아메리카 통합을 위한 고속도로 일부가 완공된 듯 하다.

우리나라의 종래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어눌한 시각을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MERCOSUR의 경제적 잠재력, 풍부한 부존자원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진출 방안 강구가 있어야 하겠다.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섬유, 중화학 부문 상품 진출도 이제는 100억불 선에 육박하고 있고 상품도 다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역외 공동관세 채택으로 관세가 인화된 품목에 대한 수출확대 방안과 아울러 유리한 경쟁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을 위한 관, 민 공동의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 마련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The Background Accounts of the Process for Formation of MERCOSUR

In preparing the presentation for "The Background Accounts of the Process for the Formation of MERCOSUR, the Southern Cone Common Market" the writer tries to deal with the subject not with an in-depth academic point of view, but more based on the personal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attained during the writer's diplomatic assignments in the countries comprising MERCOSUR, namely Brazil, Uruguay, and Paraguay. During his tenure in Paraguay, the writer was able to attend the MERCOSUR conference held in Asuncion, Paraguay in 1991. Therefore, the presentation focuses on the general atmosphere surrou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within the Southern Cone of the South American continent and a short geopolitical review related with the integration.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rming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and intensifying existing ones at a rapid pace. The global trend has shifted more towards regionalism, bringing forth the emergence of the European Union, NAFTA,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APEC in the asian Pacific region. Such rapid formation of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prompted the southern Cone countries into reshaping their regional economic arrangements, leading towards the creation of MERCOSUR. In the beginning, Brazil and Argentina were involved but later on Uruguay and Paraguay were invited to join them. The southern Cone Common Market occupies a land area of approximately 12,000,000km, which is much larger than the entire E.U. countries combined. It boasts a combined GDP of US\$ 483 billion, a population of 200 million and US\$ 100 billion in trade. The land is very rich in natural resoruces, with the greater part of the area still intact from exploitation. The mineral and agricultural areas top the

world ranking in production, especially in grain production. The region may well play a principal role as the world's bread basket in the 21st century.

In 1991 the leaders of four Southern Cone nations, Brasil, Argentina, Uruguay, and Paraguay, met together in Asuncion, the city of Paraguay, for the signing of the MERCOSUR treaty. The four heads of state were much elated by the recent wave of democracy sweeping the region and the resulting positive international attention surrounding the return of democracy to their nations. Democratic stability enabled these countries to overcome chronically high inflation rates and achieve some degree of economic stability, which contributed to the return of foreign capital. Confident of their newly found economic and political stability, they called for joint efforts to pave the way towards sustained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guarantee the longevity of their democratic governments, reduce foreign debt, increase the level of private investment in the MERCOSUR, and eventually establish a hemispheric free-trade zone. The treaty meeting proceeded with a very different atmosphere very much unlike earlier conferences or meetings. It used to be that such meetings between the hemispheric nations were often filled with rhetoric replete with prolonged speeches not related with that meeting. This time, the meetings started on time and no rhetoric nor unnecessary long vague words.

The four countries are proud of their independence heroes, Simon Bolivar and San Martin, two men who were ardent advocates of internationalism and called for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 early as the beginning of 19th century. The Pan American Union was created well before the League of Nations and later the United Nations. The economic potential and spirit of internationalism for the MERCOSUR countries helped pave the way for inter-American cooperation. It is not only for the integration but also to be in a better position for future negotiation in economic and trade with E.U., NAFTA, and APEC.

In viewing the Korea-Latin America economic relations, especially with the MERCOSUR countries, there are some important facts which the Korean sid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First, the economic potential and favorable

geopolitic standing of MERCOSUR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as a bridge-head for the increased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E.U. and NAFTA. Lastly,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positive economic cooperation are encouraged for further development in the mutual interest and benefit.